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켈로그사 1일 6시간 근무로 효율성 극대화

미국의 명문기업 중에는 창업 당시의 독특한 경영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씨리얼로 유명한 켈로그사도 그런 명문기업 중 하나이다.

켈로그사의 노사관계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1965년부터 6시간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이오와 주립대학 경영학부의 벤자민 하나카트 교수는 켈로그사의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미래 직장의 모범적인 표본이라고 극찬했다.

켈로그사는 식품회사로 그 성격상 정확한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8시간의 작업보다 밀도깊은 6시간을 선택한 것이다. 그 효과는 종업원들의 활기찬 얼굴에서 느낄 수 있다.

클레임과 이직률 줄인 근로시간 단축

켈로그사는 창업당시 식품을 생산하는 적격 기술자를 모으기 위해 '8시간분의 월급을 6시간 노동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경영철학은 눈부신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회사측의 공약에 따라 생산에 적격한 종업원이 모였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예를 들면 소비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약 70%나 줄었고 공장내의 수리를 필요로하여 부품을 바꾸는 비율도 80% 정도로 줄었다. 또한 종업원의 정착률도 높아져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람이 다른 업체에 비해 적었다. 8시간동안의 작업 집중은 사람에 따라 무리한 일일 수도 있다. 켈로그사의 작업시간대는 아침과 저녁의 시간을 한시간씩 줄여 실제 근로시간내에 효과적이고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 30시간 근무는 생활의 질을 우선하는 미국인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미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제과업계도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

스페인, 멕시코, 핀란드에서도 주 30시간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93년 총선거 때 노동시간 단축이 쟁점이 되었다. 잘 알려진대로 독일에서도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주 3일 휴무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장에서는 집중도의 차가 제품의 불량률 발생률에 반영되고 있는 반면 사무직에는 능률의 차이가 있을 정도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노약자를 간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정년을 앞둔 사원에게 주 30시간의 근무는 정년에 적응할 여유를 준다고 생각되어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미국의 노동계에서는 10년 후까지는 6시간 근무시간제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혜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유럽 제과업계에서도 근로시간과 노동환경문제는 다소 특별한 배경으로 검토되고 있다. 「유로피안 베이커」 96년 3월호에 따르면 제과 기술자들의 천식예방이 독일에서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장시간 밀가루, 호밀가루 등 가루와 접촉 하는 직장에서 반수 정도의 노동자가 천식에 걸려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영국에서는 분말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방분(防粉) 마스크가 등장하였고, 최대 노동시간을 규정하거나 3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주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켈로그사와 같이 제과 기술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예측되고 있다. [6]